

1. 인종에 갇힌 몸들

- 이탈리아 의류회사 베네통(Benetton)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지를 연상시키는 사진들을 마케팅 전략으로 사용
- United Colors of Benetton이라는 문구 아래 세계평화와 인종화합의 선언이 담긴 컬러풀한 의류를 만들, 그러나 과연 윤리적인가?
- 베네통의 광고는 백인, 흑인, 황인이라는 3분류법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음
- 이러한 익숙한 형식으로 반복되는 스테레오타입이 인종주의에 계속해서 생명력을 불어넣음
- 그렇다면 우리의 인식에 각인된 인종의 분류법은 언제 생겨났을까? 인종 개념의 기원과 분류는 무엇일까?

인종 개념의 기원과 형성

- 인종이란 민족과 계급처럼 태초에 존재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역사적 산물로서 발생한 것임
- 근대 이전의 유럽에서 인종은 '혈통'이나 '품종'을 의미했음
- 첫 번째 계기 - 레콩키스타(Reconquista) & 콘베르소(converso)
 - 레콩키스타 - 그라나다 함락으로 기독교가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고 재정복한 전쟁
 - 이 과정에서 무슬림과 유대인은 기독교로 개종, 그러나 거짓 개종자가 발생
 - 콘베르소, 즉 개종한 유대인이 '핏줄'이 달라서 문화나 종교의 차이가 아닌 본질적인 차이로 개종될 수 없다는 논리 발생
 - 이로 인해 '좋은 혈통'과 '축복받은 집안' vs '나쁜 혈통'과 '저주받은 집안' 등 가치판단이 개입
- 두 번째 계기 - 분류 기술과의 결합
 - 아메리카 대륙 정복 이후 프랑스 의사이자 여행가인 프랑수아 베르니에에 의해 인종이 분류(유럽인, 아프리카인, 아시아인, 라플란드인, 인디언)
 - 이러한 인종 분류 방식이 조르주 루이 르클레르 드 뷔퐁 백작, 카를 폰 린네, 요한 프리드리히 블루멘바흐 같은 자연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지며 18세기 말 유사한 외양과 특성을 공유하는 생물학적 하위 분류로써 인종의 개념이 자리잡음
 - 유럽인과 비유럽인이 만나는 '접촉지대'가 발생하여 무력에 의한 정복 뿐 아니라 분류학을 통한 세계의 유럽학문 체계 안으로의 통합(반정복의 정복, anti-conquest conquest)해 '궁극의 정복'을 이룸(린네의 분류학이 그 대표적 예)
 - 한편, 유럽인들의 인종론은 이러한 분류학의 계보 뿐 아니라 미학의 계보 또한 따름(요한 요하임 빙켈만의 그리스 조각 찬양)
 - 과학으로부터 미학으로, 미학으로부터 과학으로의 전환과 순환이 근대 인종주의의 특징
 - 인간 본성과 내면의 아름다움이 신체적 기호로 드러난다는 고전적 미학사상에 따라 백인 유럽인을 미의 기준으로 삼아 인종적 서열화

린네의 분류학

1735년

- '탐사'와 '분류' - 인종 개념을 구성하는 재료
- 첫 번째 사건 - 프랑스 지리학자 샤를 마리 드 라 콩다민
 - '남아메리카 대륙여행에 대한 짧은 서사' - 아마존 정글을 매혹적이고 위험한 세계로 묘사한 보고서(라기보다는 사실상 문학적 글쓰기)
 - 라 콩다민 이전의 탐사(콜롬버스, 마젤란 등)는 주항의 형태로서 바다로 나아가 무역로를 개척하고 해안선을 따라 세계지도를 완성
 - 그러나 라 콩다민은 직접 내륙 탐사에 성공, 그로 인해 유럽인과 비유럽인의 접촉이 증가
 - 이로 인해 유럽의 인식 체계가 지구상 여러 지역을 포괄하며 제국주의적 야망이 본격적으로 추진

- 두 번째 사건 - 린네의 『자연의 체계』(Systema Naturae) 출간
 - 처음으로 인간을 네 '변종'(varieties)으로 나누는 분류체계 확립
 - 과학이 전문분야로 세분화되기 이전 자연학을 하던 의학과 교수로써 제자들(충실한 '사도')이 전세계에서 수집한 표본으로 식물 분류체계 완성
 - 18세기는 자연신학이 종교와 불화하지 않는 안전한 설명방식 & 교양인의 상식으로 받아들여져, '뇌' 기능에 관심이 있고 두개골을 관찰하는데에도 재미가 있었으나 뇌와 두개골을 통해 정신작용 비밀을 캐는 "유물론적" 시도는 무신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더이상 진행하지 않음
 - 그럼에도 인간과 동물을 연속선상에 배치해 분류하고자 했고, 인간만을 특별히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의 '호모사피엔스'로 명명

인종의 표지, 피부색

- 앞서 언급한 린네가 '피부색'에 따라 인류를 분류한 최초의 인물
- 인종차별의 비극을 겪고 한동안 피부색의 언급이 금기시되었으나, 1960년대 이후 피부색이 생물학적 실체가 없는 개념임이 밝혀졌어도 여전히 왜 &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따로 밝히고자 하였음
- 형질인류학 & 진화생물학적 관점에서 피부색은 인류가 털이 없어지고 사냥을 하며 햇빛에 노출되어 자연스럽게 어두워졌으나 위도가 높은 지역으로 인류가 이동하며 얻은 피부색의 인류가 등장
- 결국, 피부색은 자외선 강도라는 환경요인과 관계있을 뿐 인간을 분류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린네는 호모사피엔스를 유럽인 백색, 아메리카인 홍색, 아시아인 갈색, 아프리카인 흑색으로 하위분류함
- 이는 18세기까지 유럽인들이 인간의 차이를 종교와 복식을 통해 인식했는데 상업사회가 도래하고 사회적 이동이 증가하자 드레스 코드가 더이상 믿을만한 지표가 되지 못하며 시작
- 이에 따라 오랜 의학 이론인 체질론이 인간의 다양성을 설명하는데 활용되었고, 이를 기초로 '피부색'으로 인간을 구분하게 됨
- 고대 로마 의사 갈레노스가 집대성한 4체질론의 핵심 개념 '콤플렉시오'에 따라 4체질에 기반한 4체질의 비율의 차이로 인해 남녀, 노소 등이 구분된다고 믿음, 피부색 또한 콤플렉시오가 몸의 표면에 물리적으로 표현된 것이라 인식됨
- 린네는 이 4체질설과 더불어 성경의 천국(에덴동산) 4구역에 따라 인간을 4유형으로 분류
- 여기에 덧붙여, 인간들 사이의 차이가 기후에 근거한다는 기후론에 의해 18세기 무렵부터 검은 피부에 부정적 의미가 덧씌워지고 높은 기온과 햇빛은 기력을 소진시키기 때문에 열대지방에 사는 검은 피부의 사람들은 게으르고 음탕하다는 차별적 담론이 우세
- 결국, 비록 린네는 인간의 분류로써 '변종'이라는 명칭을 끝까지 고수했으나 이후에는 '인종'이라는 단어가 더 널리 쓰이고 피부색을 가리키는 단어로써 '콤플렉시오'가 정의되기에 일러, 피부색이 신체적 특징 중 가장 두드러진 표지로 부상

젓가슴의 정치학

- 인간을 네발동물(강)로 분류한 후 공격을 받자, 린네는 이를 '젓가슴을 가진 동물'이라는 의미의 '마말리아'로 재명명
- '젓을 먹는 동물'인 '락탄티아'로 분류하지 않은 이유에는 젖더정치의 맥락과 린네의 젓가슴에 대한 비상한 관심에 의한
- 린네는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사람으로써 암수 모두가 가진 가슴이 아닌 암컷, 여성만 가진 젓가슴을 연상시키는 마말리아를 사용함으로써 여성이 동물에 가깝다는 판단을 암시
- 더불어, 당시 모유수유가 여성의 생명 생산능력에 대한 찬양과 동시에 여성을 생물학적 역할에 묶어둠으로써 여성에게 육아의 역할을 전담케 하는 명분 제공

분류의 욕망과 인종주의

- 라 콩다민의 국제과학탐사단 출발과 린네의 출간 이후 유럽보다 자연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비유럽 사람들에 대한 유럽인들의 시각이 달라짐
- 라 콩다민의 탐사단을 시작으로 '과학적 탐사'라는 중립적 이름 하에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내륙에 대한 침탈 가속화
- 린네의 명명법은 과학적 성과 뿐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써 라틴어 명명을 통해 자연을 서구 지식체계 안에 길들임

- 결국, 린네가 인종을 분류하는데 피부색을 도입한 것은 사실이나 인종간 위계질서를 부여하고 차별을 정당화 하기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
- 그러나 린네에 의해 인류 4분법이 피부색에 따라 인종을 분류하는 이론의 시발점이 된 것은 맞음

빙켈만의 미학

빙켈만과 고대 그리스

- 고대 그리스의 문화를 고대 지중해 세계의 동서 문화교류는 배제한 채 최상의 문화라고 주장함으로써 서구 근대 백인우월주의 신화가 완성됨
- 이 고대 그리스 문화를 유럽문화로 연결시킨 사람이 미학자 빙켈만
- 『그리스미술 모방론』을 통해 당대 바로크양식을 비판하고 고대 그리스 조각작품이 조형미의 모범이자 모방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라 주장
- 빙켈만이 고대 그리스에 '서구 문명의 원류'라는 위상을 부여하고 빅토리아시대 영국인들이 고대 그리스인(헬레네스)를 '백인 유럽문명의 선구자'라고 부름
- 그러나 이러한 헬레네리즘의 그리스는 '역사적 실체로서의 그리스'가 아니라 당대의 필요에 의한 이상화된 고대 그리스의 '재창조', 유럽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를 자신의 "조국의 연장"으로 간주하게끔 하고 눈앞에 보이는 그리스의 공간을 과장된 고대사로 포장
- 이러한 현상에 대해 논한 마틴 버넬은 그리스문화가 근본적으로 아리아 계통이라 보는 '아리안 모델'을 비판, 이러한 고대 그리스 신격화는 빙켈만의 신고전주의 미학에서 근거해 이집트와 근동의 영향을 은폐했다고 주장

흰 그리스 조각상

- 빙켈만으로 대변되는 독일의 신고전주의 논의는 '색'과 '문화'를 두가지 차원에서 연결
- 첫째, 대리석의 흰색은 간접적으로 유럽인의 흰 피부색과 연결됨
 - 아폴로 조각상 <아폴로 벨베데>를
- 둘째, 문명이 발전하면 원시인의 바디페인팅 같은 신체 채색과 장식 뿐만 아니라 조각의 채색도 사라진다고 인식
 - 서구 문명에서 색의 부재가 문명의 높은 발전과 연결된다고 해석
 - 사실, 고대 그리스로마의 건물, 기념비 등은 유치할정도로 밝고 다양한 색으로 채색되었음이 후에 밝혀짐
 - 빙켈만 뿐만 아니라 서구문화에서 이미 색을 여성적 / 동양적 / 원시적

안면각과 두개측정에서 인종 사진까지

캄퍼와 블루멘바흐

- 린네가 피부색으로 인류를 분류하는 동안 두개골과 머리로 인류를 분류하는 시도
- 캄퍼
 - 인간과 동물(특히 오랑우탄)의 관계, 아름다움의 상대성 등을 연구
 - 알려진 바와 다르게, 안면각 연구를 통해 유럽인과 아프리카인이 미학적으로 동등함을 증명하려 함
 - 모두 신의 피조물으로써, 인종 편견의 원인이 되는 미학적 호불호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
 - 후대 학자들이 캄퍼트 사후 텍스트로만 연구를 분석해서 잘못 이해됨
- 블루멘바흐
 - 린네의 분류학은 인위적이고 자의적이라고 판단, 두개골 넓이를 통해 인류를 다섯으로 분류
 - 백인과 동의어로 사용된 '코카서스인'이 시원의 인류로 가장 아름다운 두개골을 가졌으며 확실히 흰 피부를 가졌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음
 - 한 조지아 여인의 두개골을 코카서스의 원형이자 가장 아름답다고 찬양
- 결국, 린네의 유형학적 분류 이후 두 사람이 비교인종분류학의 인종론을 전개

- 캠퍼르는 노예제의 비판자이며 유럽인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았으며, 결국 두 사람의 인종학은 19세기 말 인종집단 개선을 위한 우생학의 인종론과는 분명히 다른 논지임

골상학과 두개측정학

- 골상학
 - 19세기 초 오스트리아 빈의 의사 프란츠 요제프 갈이 창시
 - 1. 두개골이 뇌의 정신기관을 반영하는 기호라는 믿음과, 2) 뇌 기관의 차이가 행동의 차이를 결정한다는 믿음에 바탕을 둔 대중과학
 - 에든버러의 조지 콰인 갈의 제자 요한 카스파르 스푸르츠하임에게 골상학을 배워 영국에 전파
 - 골상학에서 골상으로 표출되는 성격이 형성될 때에는 환경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믿어 "인도 정복은 범죄", "유럽인의 니그로 노예화는 자연의 계획이 아닌 우연의 산물"이라며 노예제와 식민주의에 반대
 - 다윈은 심지어 비글호 탑승 당시 선장이 다윈의 코에서 열정과 의지가 보이지 않아 배를 타지 못할 뻔 했음
 - 골상학은 뇌에 관심을 갖도록 이끌어 두개 측정학이 등장하는데 영향을 미침
- 두개측정학
 - 인체측정학의 분과로 다양한 인종의 두개골을 비교연구하는, 인종주의가 얼마나 기괴하고 우스꽝스러운 집착인지를 보여주는 악명 높은 사례 중 하나
 - 처음 의도는 그러지 않았으나, 인종의 표지를 머리모양과 크기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여 그 결과 인종주의를 정당화하는 과학으로 기능
 - 미국의 해부학자 사무엘 조지 모턴은 백인의 두개골 부피가 가장 크다는 이유로 백인이 가장 진화한 인종이라 결론지음
 - 하지만 이 주장은 결국 모든 남성이 여성보다 지능이 높다는 결론을 암시하여 허구성이 짙으며, 표본 선정에 있어서도 의도적 조작(백인 - 남성 / 흑인 - 남녀 섞임 / 아메리칸 인디언 - 체구가 작은 부족)을 가함
- 결국 인종 간 우열을 가리는데 피부색보다 더 확고한 근거를 원한 과학자들은 두개골에 열광함
- 피부색과 두개골이라는 신체적 특성에 따른 인종 분류는 인종 간 차이를 생물학적인 근거를 갖게하여 '자연화'하는 시도임

인종 사진과 열등 인종의 가시화

- 미국의 인종학자 루이스 아가시 - 노예 다게레오타입 사진으로 악명
 - 다윈발생론자(인류의 조상이 하나가 아님)로서 노예제를 지지
 - 섭외를 도왔던 로버트 W. 깁스가 지방 사진사 조셉 T. 질리에게 노예 사진을 찍게 함(질리 시리즈)
 - 노예제폐지 운동의 선구자 프레더릭 더글러스 - 유럽인의 초상화는 고귀한 모습으로 그려지나, '니그로'는 항상 열등하게 표현된다고 주장, 유럽인과 동등하게 최상의 유형으로 아름답게 표현되어야 한다고 역설
- 프랜시스 골턴 - '우생학' 신조어의 창시자
 - 살아있는 사람의 두개골을 측정해 수치를 지능, 계급, 인종과 연결
 - 합성사진 기법으로 '적격자', '부적격자' 구분
 - 특정 유형에 속하는 여러 사람의 사진을 겹쳐서 윤곽선을 얻어냄
 - 이러한 합성사진을 통해 빈민, 범죄자, 유대인 등을 가려낼 수 있다고 주장 => 우생학적 계량 기술의 대상인 부적격자를 골라내려 했음
- 결국 인종주의는 비합리적인 것을 합리화하여 편견과 차별을 정당화
- 두개측정학과 인체측정학이라는 소위 '과학적' 방법을 통해, 그리고 이를 시각적으로 각인하는 인종사진을 통해 '발명'됨

2. 검은 몸의 노예, 저항의 언어

누가 '흑인'인가?

'한 방울 법칙'과 시선의 권력

패싱, 인종의 경계 넘기

노예무역, 노예제, 노예가 된 아프리카인

노예무역과 아프리카인의 노예화

'노예가 된 아프리카인', 올라우다 에퀴아노

노예제의 유산과 기억의 정치

대서양 노예무역폐지 200주년 기념

노예제 기억과 이미지 정치